

 기획재정부		<h1>보도 참고자료</h1>	
보도일시	배 포 시	배포일시	2021. 9. 30.(목) 13:20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심규진 (044-215-2750)	담당자	손정혁 사무관 (f15strike@korea.kr) 이유진 사무관 (caogugoat@korea.kr)
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이동훈 (02-2100-2830)		김경문 사무관 (kimkm88@korea.kr) 김나혜 사무관 (nh1021@korea.kr)
	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 이수영 (02-2100-2850)		이지호 사무관 (jih88@korea.kr)
	한국은행 조사총괄팀장 최창호 (02-759-4181)		김형진 조사역 (hyungjin@bok.or.kr)
	금융감독원 거시총괄팀장 김성욱 (02-3145-8172)		송하균 선임조사역 (larrysong@fss.or.kr)

제목: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결과

□ 경제부총리, 한국은행 총재, 금융위원장, 금융감독원장은 9.30일 오후 두 번째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경제·금융상황, 대내외 리스크요인, 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 4가지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같이함

① 경제·금융상황과 관련하여서는

-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서도 글로벌 경제와 우리 경제의 구조적 회복흐름은 견지될 것으로 전망
- 경기회복과 함께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거시·재정·금융 정책을 조화롭게 운용(policy mix)해 나가기로 함
- 위기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의 연착륙과 방역과 민생이 함께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이행 필요성에 공감

② 대내외 리스크와 관련해서는

- 대외적으로는 최근 공급병목 해소 지연 가능성, 美 테이퍼링, 중국 부동산 부실 등 글로벌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함
-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및 가계부채 등 유동성과 연계된 현안이 리스크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
- 이러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대응 및 컨틴전시 플랜의 보완을 위해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더 긴밀히 가동해 나가기로 함

③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

- 빠른 증가속도가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함
-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년 6%대 증가율을 목표로 상환능력 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,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함
- 이 과정에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여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10월 중 발표하기로 함

④ 거시경제의 전환기적 상황에서

경제·금융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와 정책 조율을 위하여 4자회동을 공식·비공식적으로 보다 자주 가지기로 함